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남을 하대하고 보면 안 됩니다

☞ 21면에서 계속

런데 마음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 '이게 뭐, 마음이 그렇게 나간다고 그게 되나?' 이렇게 하겠지만, 오늘 비는 오지 않아서 그렇게 애쓰지는 않으셨죠. 그쯤만 되면은 편안한 거죠, 뭐.

이게 쪼그맣든지 크든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쪼끄만 걸 가지고도 몸이 불안하고 편치 않아서 온통 이틀 사흘이 가도록 그냥 엉클어지게 되고, 그럼 그게 오래가면 병이 되고 그런 거죠, 뭐. 혈관이 막히고 피가 제대로 가질 못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깐 이 공부 하는 분들은 모두가 그저 이 자기 내면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삼라만상 일체를 하나 지금 현실로만이 다 갈 수가 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실에 미래도 있는 거고 과거도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의 생각대로 이 모든 거를 다 헤쳐 나갈 수 있다.

여러분이 알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이 누진을 컴퓨터라고, 자동적인 컴퓨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동적인 컴퓨터에 과거에 살던 모든 것이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현실에 다시 모든 것을 거기다 놓는다면, 입력이 된 데다가 다시 놓는다면 앞서의 입력은 없어지고 새로이 입력 들어가는 것이 있으니까 새로이 입력된 게 현실에 그냥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가 얼마나 많은가. 업이 많구나.' 이런 것도 다 무효예요, 이게.

업이다 죄다, 내가 과거에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깐 이 업이 이렇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것도 거기다 놓고 우리가 지금 삶이 없이 사는 겁니다. 먹는 사이가 없이 먹고 사는 사이가 없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껍질을 이끌어 가면서 이게 상대성으로서 모두 더불어 같이 이렇게 봐야만 다 잡히니까 사람이 보이는데, 물질로서는 그렇게 봐야만 사는 거니깐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이 차라면 끌고 다니는 속의 운전수가 그걸 전부, 더럽고 그러면 닦고 뭐, 고치고 또 망가지면 아주 폐차를 시키고 새걸 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그냥 간편하게 전력이라고 얘길 하지만 우리가 한 생각에 그렇게, 요 한 발짝 너머가 미국도 되고 한 발짝 너머가 중국도 되고, 한 발짝 너머가 딴 혹성이 되고 은하계가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데서는 전부 뜻으로, 그 진리의 뜻으로써 혼합이 되니까 여기서 물질로서 살던 분들이 가면 그게 맞지를 않아서 누가 받아들이지도 않을걸요? 이 모두가 여러분이 살아나가시는 데 참 편리하고 편안하다 이겁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편안하다. 지금 금방 죽을 일이 생겨도 '이거는 네가 한 거지 딴 데서는 이러지를 않아. 너밖에 할 놈이 없으니까 고치는 것도 너고 살리는 것도 너야. 죽이는 것도 너고.'

이 모두가 현실로서 우리가 주장하고 나갈 수 있는 건 전부 지금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 이 껍질, 몸, 모습은 이렇게 다 망가져서 벗고 그러지만 이 자기의 그 모습 아닌 내면의 근본은 세세생생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고 사는 거죠. 진화는 이 모습을 진화시켜서 자기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야 편리한가, 또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사람 모습으로, 움죽거리는 모습으로 나오니깐 고달프고 귀찮아 이런다면 또 딴 게 뭐 있나 이런 것도 좀 보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게 있죠. 왜 도깨비가 말입니다, 거 비유해서 하는 얘깁니다. 보살들의 행이라는 건 보지를 못하셨으니까, 도깨비장난 하는 건 봤어도. 그런데 도깨비가 금방 여길 뛰어와서 다 보고 이렇게 하고도 또 딴 데로 없어지고 그러죠. 그런데 보살은 없어지는 것보다도, 이게 개구리에게 진화를 시키는 마음을 주려면 또 이 개구리가 될 수도 있고 돼지도 될 수 있고, 수만 가지가 다 인연 따라서 전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사는 게 없이 사는 거예요.
> 그냥 탤런트 역할 하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 알고 보면 악 쓰고 화낼 게 하나도 없어요.
> 그저 걸림이 없이 이 공부를 꾸준히, 끊어뜨리지 않고 가는 거죠.

일 초도 모습이 가고 오고 이게 아니라 이게 전부 그 마음이 진화를 해서 다른 걸로 모습을 가져 나오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억수 같은 이 모든 마음의 장난이라고 할까, 마음으로써 이 도량을 이끌어 가는 문제들, 내 몸까지도 작은 도량이라 해도 됩니다. 큰 도량 작은 도량 뭐, 도량도 하도 여러 가지 많은 그 도량을 다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기의 뜻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을 하려면 이 도리를 배우는 길밖에 없어요. 이 마음의 도리를. 진짜로 말입니다.

가정불화가 심합니다

질문 참 인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할 때는 사랑으로 결혼했는데 자식들 낳고 살다 보니 남편과 자식들 사이에 불화가 심하고 살 의욕이 생기질 않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여러분이 말로만 '사랑 사랑' 하지 진짜 사랑을 한다면,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자식지간에도 그렇고 보기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끼리끼리 만난 인연들이거든요. 우연이라는 거는 없어요. 여러분도 살아 보시지마는 노동하는 사람은 노동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하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치를 하고,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모여서 논의하고 이러죠.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가 있습니까?

한 가족이 모이는 데도 사과는 사과대로 모이고, 금은 금대로 모이고, 은은 은대로 모여서 살고, 구리는 구리대로 모이게끔 돼 있거든요, 넝마는 넝마대로 모이고요. 그래서 세계가 지역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런 지역에 가서 태어나는 것도 끼리끼리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가서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기계에다 넣고 큰 것 작은 것 고르고, 썩은 것 성한 것 고르고,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전부 따로따로 끼리끼리 놓고 팔고 사고 그러죠?

그렇듯이 사람도 차원에 따라서 모습을 가지고 나오게 하면서, 그 차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골라져서 지금 굶어서 죽는다고 하는 나라, 이런 나라 저런 나라에 제각기 아주 철두철미하게 태어나죠. 미국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한국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말입니다. 그렇게 아주 질서 정연하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엉망으로 사는 것 같지만, 왜 잘사는 사람은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이렇게 못살게 되나 하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한탄을 하고 그러지마는, 그게 자기가 다 만들어 놓은 일입니다. 누구한테 한가를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안다면 남을 미워할 수가 없고, 죄를 더 지을 필요도 없고, 뭐, 마음을 그렇게 초조하게 가져서 내 몸을 병들게 할 것도 없고, 망했다고 그냥 돈 버리고 사람 몸뚱이 버리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구요. 버렸으면 '어, 버려졌나 보다. 네가 버려지게 했으니까 네가 또 일으켜 세우겠지.' 이렇게 태연하게 마음을 먹고 늠름하게 나간다면, 아마 주변 어디서든지 자기 주인공이 귀한 사람을 끌어들여 만나게 해서 서로가 살게끔 될 겁니다.

그런데 뭐, 죽네 사네 하면서 집안의 식구들도 못살게 하고, 화가 나서 오며 가며 화풀이를 여기저기다 하니까 식구들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 복도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죠. 그 틈에 들어올 수가 있나요? 오늘 살다가 이따 죽는 한이 있더라도 허허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가 그렇게 겁나는 일입니까? 그러한 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내일 죽는대도 겁 안 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죽게 하지도 않아요. 청개구리거든요. 이렇게 한다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 하면 이렇게 하는 이치가 바로 우리들의 욕심을 버리게 하기 위한 방편이라고도 볼 수 있죠.

'야, 하늘이 무너진다는데 이거 다 먹어치우고 그냥 다 써 버리자.' 이러는 사람 앞엔 정말 다 써지고 하늘이 무너지지만, 허허허, 그저 그런 거에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기 그대로 꿋꿋이 가면서 '아휴! 이따가 죽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사람이 소꿉장난을 하다가 날이 저물면 다 버리고 가는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남의 재산을 함부로 쓰면 어떡하나, 주인공의 재산인데.' 그렇게 하고선 아끼고 좋은 일 잘하고 살면 그 값어치가 더 들어오면서 사람 살기가 유하고 하늘이 무너지지도 않고 그러죠.

기독교에서도 불바다가 된다, 다 죽는다 이러는데, 제가 스물몇 살부터 그러던 건데 여직껏 그래요. 하하하.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그것이 모습이 변해서 그렇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불바다가 되고 그래서 죽는 게 아니라 자기네 마음들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마음들이 그렇게 불바다가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의 근본은 불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헐렁해지면 정말 불바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잘 생각을 한다면, 어떤 거든지 내가 아니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구의 수명도, 인간의 수명도 모두 사는 데까지는 그냥 살 거다 이겁니다, 사는 날까지는. 그게 무슨 소린지 아십니까? 사람도 사는 날까지 여여하게 살다가…, 나는 간다 뭐, 어쩐다 표시로써 3, 4, 5년씩 또 1, 2년씩 아프게 만들어서 온통 바깥으로 소문을 죄 내고 이렇게 해서 옷을 벗는 게 아니고, 옷 벗기 전에 가서 자리를 마련해 놓고, 와서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재차 그냥 세상으로 나가죠. 이렇게 좋은 법을 어찌 우리가 그냥 무덤덤하게 넘길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픈 것처럼 슬픈 게 없어요. 여러분이 경험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마는 정말 죽는다고 했을 때의 고통, 죽지 않아도 항상 고통을 받으면서 지겹게 아픈 사람들,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럭하고 살면 뭘 합니까? 이럭하고 살면 뭘 하느냐고 입으로다가 몇 번씩 외우면서도 그걸 겪어야 하죠. 그렇게 하다가 그냥 너무나 지겨워서 때로는 약을 먹고라도 좀 죽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렇죠. 그럭하면 뭐 합니까?

생시에 살아 있을 때에 우리가 꺼풀을 벗으려면 미리 자리부터 만들어 놓고…, 왜 우리가 이사 가려면 집 먼저 사 놓고 이사를 가죠? 그런 거와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아주. 그래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옷을 훌렁 벗고서 그냥 가면은 아픔으로 고통받지도 않을 거고, 그게 다 업이니까요. 또 자기 차원을 마음대로, 모습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종업원에게 자꾸 화를 내게 됩니다

질문 저는 조그마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일하는 게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들지만 안쓰러워 내쫓지는 못하겠고 그러다 보니 자꾸 화를 내고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 마음 다스리려고 노력하는데 마음의 힘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정신 차릴 수 있게 째찍질을 좀 해 주세요.

답변 우리가 나쁜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죠. 나쁜 생각을 하면 벌써 자기부터도 좋지 못하니까요. 하여튼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남을 하대하고 보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내 모습과 같고 내 아픔과 같은 거니까요. 모두가 밉고 곱고가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아주 이 고통스럽게 복장이 올라올 때가 많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천년만년 살 줄 알기 때문에 그 복통이 올라오도록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금방 지금 죽는다 이런다면, 죽을 줄 안다면 그 금방 죽을 텐데 뭐 그렇게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죽을 줄 모르니깐 그렇게 야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도 지금 사는 게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탤런트 역할 하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보면 악쓰고 화낼 게 하나도 없어요. 모질게 할 일이 하나도 없고요. 그저 걸림이 없이 이 공부를 꾸준히 길게, 끊어뜨리지 않고 그냥 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많이 밝아지기는 밝아졌는데 너무 물질계로만 밝아졌죠. 그러니까 이게 정신계도 같이 밝아져야만이 이게 모두가, 우주와 지구, 이 다른 혹성도 모두 이, 형성이 되는 건데, 보고 듣고 이러는 것만 지금 야단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반면에 발달되는 분들은 발달되고요.

이 공부를 해 가면서 '같이 더불어 이렇게 살고, 더불어 가고 있고, 더불어 이렇게 굴레바퀴가 돌아가듯 하는구나.' 하고 침착하게 생각하세요. 나 아닌 진짜 나가 없다면 정말 이런 생각도 못 하고 이렇게 고생하지도 않습니다.



전국 주요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동시 판매중!

바닷속 거북이 너울너울 춤을 추고
돌장승 노래 부르는 소리
온 천하에 울려 퍼지리!

신간

대행선사 게송 · 선시 모음집

일체제불의 마음은 내 한마음

본 책자에는 선사께서 법회 때 읊으셨던 게송, 선법가 가사로 만들어진 선시,
편지글 속의 게송과 함께 친필 원고 일부가 실려 있습니다.
가격: 20.000원 336쪽 엮은이_(재)한마음선원 출판부
현대불교신문사 02)732-1520 **무진향** 031)470-3118